

국민연금 정부안 내달 나올듯... "국민제안 검토중"

복수안 형태로 국회 제출... 사용자·노동자 의견 반영

당초 10월 국회 제출 예정이었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법정시한을 넘겨 11월 내에 나올 전망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전문가 및 일반 국민들이 제안한 30~40개의 안들을 검토중이며, 이 안들 중에서 복수안을 정해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

며 "아직 어떤 안도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검토중인 안들에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 8월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을 포함해 다양한 안들이 포함돼 있다. 위원회는 당시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하되 내년부터 보험료를 9%에서 11%로 올리는 안과 소득대체율은 예정대로 40%까지 내리고 10년간

1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균등부분인 A급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고려한 전체 가입자의 연금수급 전 3년간 평균 소득(A급)과 본인 평균 소득(B급), 연금 보험료 납부기간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노사위) 4차 노사정 대표회의에 특별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국회에서 양해해 줄수 있다면 10월 말 까지 제출해야 하는 국민연금 운영 계획안을 조금 연기해서라도 특위의 논의를 반영해 국회에 보고 했으면 좋겠다"며 정부안 제출 시기 연장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노사정 대표들은 경노사위 산하에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했고, 박 장관은 해당 특위 제안을 정부안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이다. 문제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상 정부의 제도개선방안은 제출 기한이 다가오는 5년마다 그해 10월말까지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앞서 "제출 기한이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지만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정부안을 잘 준비하라는 주문이 있었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특위를 구성했는데 그 전에 정부안을 내는 건 '사회적 합의'라는 전제 조건에 맞지 않는 만큼 국회에 양해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영태 기자

동서발전, 오염시설 축소 등 증금속 숨겨 보험금 덜 내

한국동서발전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오염물질과 배출량을 누락 축소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적게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서발전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7년 하반기 내부감사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먼저 동서발전 호남본부는 2016년 보험가입을 하면서 토양오염시설의 용량 1615만2800l를 1만6152.8l로 축소표기해서 보험료 1949만2300원을 덜 냈다. 또 대기오염물질인 시안화수소(HCN), 페놀(ph)이 추가로 검출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다가 1년이 지난 2017년 6월에 슬며시 보험에 반영했다. 동서발전 울산본부도 2016년 6월 자체측정에서 카드뮴(Cd), 크롬(Cr) 등 중금속이 새롭게 검출됐음에도 1년 동안 보험변경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새롭게 검출된 환경오염물질을 보험에 반영하지 않아 실제 환경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주민들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을 초래해왔던 것이다. 어 의원은 "유사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금융위 "韓, 금융그룹감독 도입 시급"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어느 국가보다 금융그룹감독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라고 말했다. 통합감독 대상이 된 금융그룹들에게는 "스스로 금융그룹 감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룹차원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며 "모범규준의 강제력 유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금융소비자와의 신뢰관계를 상기고 그룹이름에 걸맞는 위험 관리역량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앞으로 기관투자자, 신용평가회사 등 시장에서도 그룹 리스크가 잘 관리되는지 평가할 것"이라며 "금융그룹감독이 리스크 관리의 기본인 만큼 정부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에는 "금융그룹감독의 시급성을 널리 공유해서 제도도입 여건 조성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그룹감독의 편익은 다수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가지 못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로 인해서 도입이 지체돼 왔고 이로 인해 동반부실 사례도 빈번하게 경험했다"며 "다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이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환기시키고 조속한 제도도입을 뒷받침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학계 차원에서 금융그룹감독의 제도화와 관련된 쟁점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이재연 금융연구원 박사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그룹 전이위험의 측정 및 관리 방안"을,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법제화와 법적 쟁점"에 대한 발표를 했다. /뉴시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보낼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전북농협, 소양 농업인 대상 무료진료·장수사진 촬영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 소양농협(조합장 유해광), 대자인병원(병원장 이병관)은 17일 소양농협 2층 대강당에서 관내 농업인 350여명 대상, (의료지원, 장수사진촬영)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를 운영했다. 아울러, 원주 소양지역에서는 행복버스 사업의 일환으로 대자인병원 의료진 25여명이 (내과, 심장혈관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치매검사, 우울증검사) 지역 농업인 200여명을 대상, 정확한 진단에 따른 의료 봉사해, 농사일로 지친 농업인 어르신들의 피로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전북농협이 17일 소양농협 2층 대강당에서 관내 농업인 350여명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를 운영했다.

또한, 닌스튜디오(대표 김천용)는 150여명의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장수 사진촬영도 함께 이루어져 오신 어르신들이 매우 기쁘게 했다. 유해광 소양농협조합장은 "농업인 행복버스가 소양지역에서 이뤄

져 조합원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드린 것 같다"며, "앞으로 도 조합원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인 행복버스는 전국 농어촌 지역을 방문, (의료지원, 장수사진

촬영, 검안, 돋보기 지원, 무료법률상담, 문화예술공연) 복지 취약계층 지원, 농촌 종합복지서비스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사)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소비자원, 다소비 가공식품 30개 품목 가격조사 발표

지난달 햄·두부·밀가루 등 16개 가공식품의 가격이 한 달 전보다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콜라와 시리얼, 오렌지주스 등은 가격 상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다소비 가공식품 30개 품목의 9월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다소비 가공식품은 어묵, 즉석밥, 콜라, 소주, 설탕, 맛살, 국수, 참기름, 우유, 카레, 밀가루, 냉동만두, 라면, 치즈, 생수, 커피믹스, 케첩, 소시지, 맥주, 스프, 시리얼, 고추장, 간장, 식용유, 참치캔, 햄, 오렌지주스, 컵라면, 된장, 두부 등 30개다. 전월 대비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햄(-4.5%), 두부(-4.4%), 밀가루(-4.1%), 맛살(-4.0%), 스프(-3.0%), 어묵(-2.1%) 등이다. 콜라(6.2%), 시리얼(4.4%), 오렌지주스(3.9%), 즉석밥(2.5%), 컵라면(2.1%), 참기름(2.0%), 냉동만두(1.8%) 등은 가격이 올랐다. /김영태 기자

전북 NH농협은행, 전국체전 성공 기원 기부 활동 펼쳐

NH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는 17일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300만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 기원의 뜻을 전하고 나아가 문화 소외계층에게 전국체전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부 행사를 진행했다. 김장근 NH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장은 "전국체전은 15년 만에 전북에서

개최되는 만큼, 성황리에 마무리되길 기원한다"며,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지역의 체육문화 발전과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지난 8월 농촌지역 초등학교 대상, 매지데니스 어린이캠프를 진행, 문화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일주일동안 익산시 일대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



회는 47개 종목에 3만여명 선수 참가, 10월 25일부터 5일간 열리는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는 26개 종목 8천여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김영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